

## 이명박 대통령, 신고리 3,4 건설현장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건설현장에서 올해 두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쌍수 한전 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수행했다.

점퍼 차림의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경 신고리

건설소 현장에 도착, 4층 전망대에 입장해 바깥 건설현장을 보면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고리 3,4호기 건설 공정현황에 대해 자세히 브리핑을 했다.

이 대통령은 4층 전망대 방명록에 '한국 원전 세계화에 모두 함께 합시다. 2010년 1월 13일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썼다. 이어 2층 대회의실로 이동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받고 향후 예상되는 세계 원전시장 수요에 대응해 원자력분야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에 따르면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는 장기 계획 하에 원전 연구 개발에 모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관련 인력을 집중 육성해 나가게 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의 20%를 점유해 3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회의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원전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건설 인력들을 격려했다.



## 최경환 장관 ‘전기절약 대국민 담화’ 발표



올겨울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강추위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며, 앞으로도 한파가 지  
속된다면 전국적인 전력 비상사  
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  
름철에 전력 수요가 높게 마련

이지만 올해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한파로 16년 만에 겨  
울철 전력 수요가 여름 수요를 앞질렀다.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수일간 지속되는 등 올 겨울  
이상 한파가 지속된다면 최대 전력 수요가 7000만KW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은 322만  
KW로 비상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2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가정내 난방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급적 전기난방 사용은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  
하고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 1월초 4차례에 이어  
12일과 13일 이틀 연속으로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했다.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편리하다  
고 난방에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낭  
비이며, 전기 공급 용량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력수

요가 계속 급증하면 예비전력이 비상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연동제를 포함한 수요  
조절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절약 차원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력수급 6,900만KW 육박 최대수요 연일 경신

새해 들어 불어 닥친 한파로 지난 1월 12일과(6,876만  
kW) 13일(6,896만kW) 이틀 연속으로 최대전력수요량이  
경신했다.

이에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는 한편, 각 기관에서는 비  
상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전력수요가 사상 최  
대치를 기록하면서, 수요 변화에 맞춰 겨울철 전력 요금  
을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들은 전력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의 조기 준공을 유도하고, 여름철과 겨울철 수요관리를 강화해, 전력수급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방침에 호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요 공기업 중 최초인 한전의 정년 연장은 1954년생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1952~1953년생은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전이 정년을 연장하면, 현재 정년이 58세인 다른 공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한전, 노사단체협약 타결 '공기업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

- 7월부터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
- 정년 58세 공기업들에 영향 줄듯

한국전력공사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제로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보직에 따라 56세를 넘는 직원은 퇴직 때까지 점차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단협 협상에서 정년을 2년 늘리고 오는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가운데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년 연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 한국,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수주

- 계약 즉시 건설 착수...48개월 이내 완공

우리나라가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공급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가칭 JRTR) 건설 국제 경쟁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우리나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르면 3월경에 요르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JRTR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 원자로 JRTR는 요르단 암만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이르비드의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세워진다.

대우컨소시엄은 열출력 5MW급, 개방수조형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와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을 2014년까지 건설하게 된다.

## 한전원자력연료(주) 김기학 사장 선임

지난 1월 12일 한전원자력연료의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김기학 사장의 취임식이 14일 한전원자력연료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전원자력연료는 정부가 지향하는 신성장 수출동력산업이나 녹색성장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며 “회사의 지속성장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G협회, 세계포럼 개최

- 1,126개사 2,200여 명 사전등록 신청
- 녹색위 위원장, GWA 회장, 일리노이주 상무장관 등 국내외 인사 참석

2010 World Smart Grid Forum이 2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국내 스마트그리드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포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세계 선도국인 한국의 사업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해외 선도기술 벤치마킹과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의 실무·현장기술 중심의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장,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종근 대한전기학회 회장, Kouki Matsuse 일본전기학회 회장 등 국내외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후 Guido



Bartels GWA 회장의 기조강연과 Warren Ribley 미국 일리노이주 상무장관의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사전 참가등록 인원이 2,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산학연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ABB코리아가 만든 몰드변압기는 27/33MVA (22.9kV-6.6kV)급으로 역대 최대 용량이다.

ABB코리아는 지난 2003년 국내 최대용량인 17MVA 몰드변압기를 제작하며, 몰드변압기의 대형화 시대를 연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몰드변압기의 제작 한계 용량은 12MVA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었다.

지난해에는 국내 처음으로 OLTC(ON LOAD TAP CHANGER)를 장착한 10MVA 몰드변압기를 인도에 수출했다.

OLTC는 유입변압기에만 가능하다는 기존 인식을 깨고 OLTC 대용량 몰드변압기 시대를 연 것으로서 변압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KEA

## ● ABB코리아, 아시아 최대용량 몰드변압기 생산

국내 몰드변압기의 역사가 새로이 써진다.

ABB코리아(대표 한운석)는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통틀어 최대 용량의 몰드변압기를 생산, 지난 1월말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